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P. 475 C해

제1독서 (마카후 7, 1-2, 9-14)

제2독서 (테살후 2, 15-3, 5)

복음 (루카 20, 27-38)

# 숨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 강론



## 예수님도 화를 내?

전 대 복 신 부

오늘 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화를 대단히 내셨다. 왜 화를 내셨나?

유대인들은 19세 이상이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참배하고 성전세를(반 세겔 : 노동자 2일노동) 바치며 제사를(흠없는 소, 양,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했다.

그 당시 유통된 돈은 유대돈, 헬라돈, 에집트돈, 두루돈, 시돈돈 등 여러 종류였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오직 유대돈으로만 내야 했기에 유대돈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소위 말하는 돈 장사들의 손을 거쳐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돈 장사들이 일정비율로 돈을 바꿔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랜만에 성전을 찾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를 한 것이다. 못된 짓을 한 것이다.

또한 제사때 쓸 제물도 아무 짐승이나 쓰지 않고 대제사장이 위축한 제물, 검사원들의 검사를 필한 흠없는 제물만 사용토록 되어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지방에서 가지고 올라온 대부분의 짐승들은 흠있는 것들이고 성전 주위에서 파는 짐승들이 흠없는 것들이란다. 검사원 역시 성전에서 산 짐승들은 흠없는 짐승으로 쉽게 검사를 해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물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럼 누가 그 돈벌이 좋은 제물(짐승)의 주인인가?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한 것이다. 이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에집트 종살이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야훼 하느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려 온 착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느님 이름을 미끼로 치부를 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이다. 하느님 이름을 빌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역정을 내신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달콤한 사랑만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화를 내셨으니 큰일났다.

나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반성하자. 사실 나는 하느님 이름을 팔아 먹고사는데만 전념하고 나의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하느님 이름을 팔지 않았다고?

모든 일에 있어 하느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 나의 일을 우선으로 하면서 신자임을 스스로 자처했으면 하느님 이름을 판 것이 아닐까, 나의 모든 것보다 하느님이 우선이 아닐까? 예수님의 진노하심(재찍)이 나에게서 미치지 않을까 두렵구나. 예수님이 엄위와 권능을 떨치시며 무섭게 나의 악습을 심판하시기 전에 내 스스로 새로운 성전인 내 자신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고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죽었던 시제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주에 시제탑이 만들어졌다. 바빠서 두르는 모양인데도 개막식날에 작동이 안되었다. 막이 내릴 무렵에야 시제가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멈추고 말았다. 아쉬운 생각이 컸다. 다행히 엿그제부터 또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었던 생명의 소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뻐했다. 역시 죽음은 서글픈 일이요 아픔이며, 삶은 기쁨이며 희망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한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병으로 죽어가는 생명,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그마한 꿈틀거림들이 얼마나 많은가! 양심 수인(良心囚人)을 구하기 위한 운동 또한 얼마나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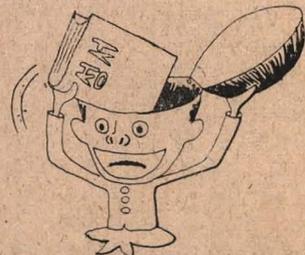
이러한 사랑의 꿈틀거림이 이 세상 어디에선가 쉬지 않고 계속되기에 우리는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동식물) 까지도 보호하고 사랑한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지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공할 무기들을 만들어 낸다. 전쟁도 한다. 참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국가건설보다는, 제자신의 자리(政權)를 지키기 위해 정적(政敵)의 숨통 비둘기를 쳐슴치 않는다.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가 아퀴노씨를 핍박하고 쫓아낸 사실들이 그 대표적인 한 예이다. 저 살쥔다고 남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짐승에 불과한 치들이 바로 그들이다.

멈춰버린 시제가 다시 움직임을 보고 기뻐하는 인간은 풀 한포기도 사랑한다. 들꽃 하나에서 생명을 느끼는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못한다.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이 때에, 우리 주위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자 없는지 살펴보자. 그 죽임(殺人)에 침묵으로 동참하고 있거나 않은지도...

## 숨 정이 산책



많이 배우자

<성당·성지 순례기>

# 聖女 데레사의 故郷 (4)

부주교 김 스테파노

나는 이번 여행이 성모님 기적의 현장을 순례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불탄서 파리에서 3박 4일 머무는 동안 성녀 小花 데레사의 갈멜수녀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는 평소에 모든 女人중에서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聖女 데레사를 공경해 왔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고교시절에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지표를 발견하였고 이로인하여 나의 사제 성소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小花 데레사의 갈멜수녀원은 파리에서 기차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이다.

나는 기차에서 내렸을때 아무에게 묻지않아도 바로 기념성당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데레사 성녀의 성당을 들어서려 할 때 갑자기 숙연한 마음에 내 몸의 체온이 40도이상 높아오름을 느꼈다. 나는 데레사 성녀의 유해 앞에서 마지막 입증하시는 성녀의 옛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성녀께서 아직 살아계신 것으로 착각하였다.. "성녀 小花 데레사여! 나 여기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小花 데레사의 유품실에는 성녀의 수도복과 신발, 그리고 착복식 전에 찢리운 머리카락, 그 외에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의 침실에는 지금부터 83년전 성녀께서 사용하시던 침대와 담요가 퇴색된채로 성녀의 평소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는 수녀님의 고향인 리쥬에서 파리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성녀 데레사의 성지를 참배하게 된 것은 평소에 데레사 성녀에게 기도해온 주님의 값음이라 생각하였다.

나는 이곳에 와 계신 김민수 (광주교구) 신부님의 인도를 받아 파리의 중심가에 있는 에펠탑, 노틀담, 박물관, 몽마르트, 그리고 세느강변을 단숨에 거닐었기에 몹시 피곤해 지쳐버렸다. 이때 김신부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모 발현성당을 들리자는 것을 피곤해서 거절해 버렸는데 지하철을 잘못 탄 탕으로 밖에 나와보니 내가 거절했던 성모발현성당이 바로 옆에 있지 않은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가 보니 수녀님들로 가득차 있고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앉았던 의자가 제 때 옆에 기념물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이번 여행중에 실수가 오히려 내 생각보다 더 잘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매일 매일 기쁨의 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앞으로 남은 먼 여행길에도 저의 뜻대로만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소서" 부탁드리고 침상에 들었다.

# 다음 주일(11월 16일)은 평신도의 날

—교구 평협을 살리는 길—

조 성 호

교구 평협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해서 1981년도 교구 예산에 9백여만원의 보조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구 예산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참여해보고서 금년도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보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일을 해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예산안을 준비했던 처지에서, 교형자매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마음으로 보조 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자체를 포기할 수 없기에 새로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모든 교형자매들이 정성껏 마쳐주시는 평신도 주일 봉헌금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신도 주일 봉헌금의 3분의 1을 본당에서, 3분의 1은 교구평협이, 나머지 3분의 1을 전국 평협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헌금을 3등분해서 본당·교구평협·전국 평협이 나누어 쓰기로 한 것은 그 어느 하나의 활동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의 어려운 실정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칙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헌금의 3분의 2를 교구평협이, 나머지의 3분의 1을 전국 평협이 쓰도록 했습니다.

날로 조직화되고 구조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교회의 선교활동도 그리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 역시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구에는 그러한 방면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제는 본당사무에 매이고, 평신도는 일터에 묶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생은 물론, 노동문제나 농촌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들어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그때만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당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방법을 전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일이 바로 교구 평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구의 예산 보조가 충분히 있다해도 그에 알맞은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엔 해보고자 몸부림치는 몸짓으로 예산안을 썼던 것입니다.

차체에 교구 평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이해해주시고, 평협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교형자매 여러분의 뜻뜻하고도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교구 평협 회장)

## 학 원 생 모 집

중장비 종합반(도자·포크렌·지게차·페로이다)  
자 동 차 운전(자가용·영업용·대형반)

매월 1일, 15일 개강 수시 접수. 대형코스 장거리 연습장 완비. 중장비반은 운전실기 연습으로 운전면허 취득, 자체장비로 수시로 실습함

### 전주 새한 중장비 자동차 운전학원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34-24 주 이연우(요한)  
전화 전주 ② 0073. (자) ③ 0591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율리안나

—로마에서 온 주교님 편지—

## 교구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은 지난 10월 8일 출국하시어 교황청 방문 및 유럽과 동남아시아 사목 방문을 위해 외국 여행중이신 본 교구장 김주교님께서 보내오신 편지입니다. 귀국하실 때까지 건강하신 몸으로 모든 일이 잘 되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문안을 나눕시다.

### + 주의 평화

존경하옵 부주교님과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 잠깐이라도 집을 떠나있노라니 새삼 평소에 함께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후 포교성성과 관계부처등과의 접촉업무는 끝나고 교황님과의 면담일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마침 이곳 로마시의 Synodus회의 관계와 관공시준인 관계로 속소문제가 다소 불편했지만 그러나 모든 이가 다 친절하게 대해줌으로 별 불편없이 지내며 오히려 우리 한국 주교단은 이곳 성도에서 온 교회의 공동체안에 더욱 깊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에서 공부하시는 신부님들의 친선 축구게임이 있어 이를 관전 격려해주는 한편, 학장 신부님을 방문하고 우리 교구 신부님들에 대한 칭찬과 호의를 듣고 흐뭇함을 느꼈으며, 내일 주일은 로마에 계시는 한국 신부님들,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함으로 친교를 더욱 두텁게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일정이 끝나는대로 독일, 벨지움, 프랑스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건강이 허락하면 필리핀, 일본 등을 들러서 가능한한 빨리 귀국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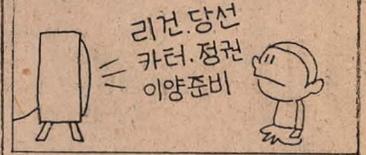
교구적으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특히 수고가 많을 우리 실무진 신부님들을 생각하니 아무리 교구밖 사목이라 하지만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건강은 약간의 피로를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음식으로 인한 탈은 없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구 신부님들께 계속 따라올 예산확정, 사목교서, 교서작성, 연수회 등 많은 수고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 수녀님들, 모든 신자들에게도 기도해 주십에 감사드려 주시고 안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염려하면서 멀리서도 조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김 제 덕 주교 드림

## 포퓰이 (379) 김병오



### ◎ 학용품 도매

## 시 민 노트 사

주문 배달해 드립니다

### □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전주 남문연 (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 (사구팔구) ④4988

###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 백 제 공 예

주 이 현 수 (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 양심을 찾자 ★

카메라대여 학교앨범 각종사진 출사

## 이리 중앙칼라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②7901  
③1270

한 원 규 (야고버)

### □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부서: 일반직 약간명(남)
  2. 응모자격
    - ① 고졸이상 30세미만의 남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 ② 주산·부기 자격증소지자 우대
  3.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당조항 소정양식)
    - ② 자필이력서 1부 ③ 명함판사진 2매 ④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⑤ 병역필 또는 면제 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 등본 1부 ⑦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
  4. 원서 제출기간: 80년 11월 10일~20일 17시까지
  5. 시험과목
    - ① 필기: 국어, 국사, 상식, 논문
    - ②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
  6. 시험일시 및 장소: 80년 11월 22일 오전 10시 당 조합
  7. 기타: ① 접수된 서류 반환치않음 ② 상세한것은 총무과에 문의바람
- 김제 신용 협동 조합  
이사장 김영옥 전화 4811-4812번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172번지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죽버스터미널 앞)

관인 김제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4회 4지구 중·고등학교 참가경연대회...11월 23일(일) 오후 2시, 전동 천주교회에서
2. 학생회장단 회의...11월 9일(일) 학생회 오후 1시, 중앙성당 사제관 3층
3.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및 단위대 선배 모임...11월 23일(일)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2천원  
※ 대학생 연합회와 단위 대학생회에서 활동하던 회장단 및 임원단의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 바랍니다
4. 쟈 모임...오늘 오후 2시, 중앙성당. 남녀 전체 쟈들은 참석 바랍니다.  
 문학강좌 안내...11월 15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 백낙청(서울대) 교수, 주제: 문학과 과학  
 군인성당 건립을 위한성금...한들성당 (1만원)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엄	기	봉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김	병	구

1.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2. 가정방문: 태평 1동-11일부터 시노2-18·19일, 중노-20·21일 지난 봄에 가정방문 빠진 분은 구역장·반장님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3. 특별강연: 9일(일) 저녁미사 후
  4. 주일학교: 토요일 오후 3시, 교리와 미사에 어린이들을 꼭 보내주세요 일주일의 기도생활 힘주 바랍니다
  5. 중학생회: 학생미사 후 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예비신자(노인, 성인, 학생반) 활동 야외미사, 교리 및 야유회: 9일, 12시~16시 장소-지명자산(누갈다 묘지) 준비물-기도서, 교리서, 성서, 도시락 ※ 당일 12시 정각까지 성당앞에 모임 것
  7. 분당 확인지도 실시: 14일(금) 오후 1시 전 사도회 일원님 꼭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87,370원

####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중	열
사도	회장	박	춘	근

1. 제 2차 성서강의: 18일부터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제 11차 성령세미나 개최: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수녀님들을 위한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
  4. 분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갈라디아서·에베소서·필리피서·골로사이서 전체
  7. 인후아파트 특전미사: 매주(토) 오후 8시
  8.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 지난주 봉헌금: 188,190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정	기
보좌	신부	조	성	오
사도	회장	양	상	열

1. 봉헌봉투를 확인합니다: 11월중에 교무금 완납 바랍니다
  2. 교적정리: 살고있는 분당 구역으로 교적을 옮기시다
  3. 성지순례: 11월 12일(수) 천진암, 회비-5천원 성모회 회합 있습니다
  4. 반석회 모임: 11월 14일(금) 저녁 6시, 덕진성당
  5. 공소 판공일정: 18·19일-새동리공소, 19일-동산촌, 25·26-전미동·미산리, 26·27-전당리
  6. 축! 결혼: 16일 오전 11시 30분 신랑-박을상(마태오), 신부-고옥화
- 지난주 봉헌금: 264,850원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법	영	배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임시회의: 다음주일(16일)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임종윤·이갑진 형제)
3. 성지순례: 12일 오전 7시 출발, 경기도 광주 천진암 회비-5,000원, 증식 각자 지참

4. 가정방문: 10일-태평동 5반, 11일-태평동 6·7반, 13일-진북동 1·2반, 14일-진북동 3·4반
  5. 주수변경과 전화번호 신설 및 변경사 사무실에 연락
  6. 11월 위령성월동안 먼지가신 선영들을 위해 많은 기도 와 미사 봉헌합시다
  7. 봉헌금 미수 속히 완납바랍니다 (80년 결산과 81년 예산 관계로)
  8. 봉사신탁 조합원 교육: 13·14일 저녁 7시 30분 조합원들 나오셔서 교육에 임합니다, 복자성당 강당
- 지난주 봉헌금: 273,610원

####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가정방문: 11일(1반), 12일(2반), 13일(3반)
  2. 반장님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회의실)
  3. 성심회: 10일(월) 오후 2시, 윤성순씨택
  4. 평화의 오후 첫회합: 13일(목) 어머니미사 후 11시
  5.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6.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사도회 임원 모임: 공식미사 후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김낙균·김광수, 신자들의 기도-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139,950원 교무금: 41,000원

####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갈	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다음주일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3. 봉헌금 밀리지 않도록 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당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미납된 신축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19,335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자모회·성화회: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천진암 성지순례: 일반 신자-3천원(11월까지 등록)
  4. 수녀원 및 소강당 신축기금 내주시 분들 김준수(30만원), 김용욱(20만원), 이종두(20만원), 유석중(20만원), 이영태(10만원), 방준철(10만원), 애령희(20만원), 자모회(20만원), 어귀남(5만원), 황귀연(10만원), 김영환(5만원), 김상양(3만원), 계 1,730,000원 감사합니다
  5. 다음주(11~14) 가정방문: 동교동
  6. 오늘의 전례담당(9일) 아침미사: 사회-박종우, 독서-① 김대원 ② 배양길 공식미사: 사회-이준영, 독서-① 안득수 ② 박도식 저녁미사: 사회-김윤우, 독서-① 변해식 ② 서방남
- 지난주 봉헌금: 357,665원

####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채	수	현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파티마의 밤: 11월 1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3. 수녀원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4. 가정방문: 12일-서완산 남부, 14일-효자1가(안행)
  5. 신축금 십입자: 유차리안나(10만원), 이안나(5만원) 천진암 잔금(2만8천원)
- 지난주 봉헌금: 92,180원  어린이 봉헌금: 2,415원  
교무금: 145,000원